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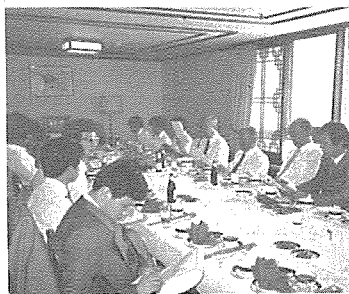
# “科技處「部」「院」급으로 格上 필요”

## 科總, 行改委의 科技處 축소안 반대 聲明

### 과학기술 優位 國家발전 행정체제구축돼야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8월1일 행정개혁위원회가 최근 성안한 산업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의 관장부처 이관 및 과학기술처 행정체제 축소조정에 대한 汎 과학기술계의 반대성명(별항참조)을 발표했다.

科總은 이날 시내 타워호텔에서 朴泰源회장을 비롯한 閔寬植 명예 회장, 金東一 상임고문, 權彝赫 차기 회장, 鄭助英 상임 부회장 등 회장단의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개혁위원회 과학기술 행정체제조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科總 산하 228개



學會, 연구기관 연명의 성명서로 밝히고 『과학기술의 혁신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하여 가는 국제여건상 行改委조정안은 시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오히려 앞으로 과

기처가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部」 또는 부총리급의 「院」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관장부처 이관은 재고되어야 하며, 현재 출연연구소의 기능을 기초연구와 첨단 기술개발에 주력케 하고 일반 산업기술개발을 각부처 소관 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기능활성화를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科總은 7월25일 긴급회장단회의를 갖고 行改委 결정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대응책을 협의했다.

오늘날 우리 國民은 각고와 인내의 결실이었던 20세기 후반의 경제발전과 최근에 진행되어온 民主化의 구현을 바탕으로 2천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가 經濟, 社會, 文化 등 각 부문에서 선진수준의 복지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염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우리 民族이 선진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은 두 말할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 사회에서는 반도체, 컴퓨터, 유

전공학, 신소재등의 출현으로 지난 2세기전의 産業革命에 비유되는 새로운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國際的인 경쟁은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며, 賦存資源마저 부족한 우리로서는 생존과 번영도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한 국제여건은 날로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기술주권주의의 출현으로 종전에는 자유롭게 얻을 수 있었던 基礎科學의 지식마저도 知的所有權 문제로 이제는 取得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보호주의의 확산은 다가오는 情報化시대에서 핵심이 되는 知識, 情報, 技術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기술보호주의, 技術植民化, 技術從屬現象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 과학기술계뉴스

이룩해야 한다는 의로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이 모색되어야 하고 전국민의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내외의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중단없이 이룩하는 길은 『科學技術의革新』 뿐임을 강조하면서 그에 걸맞는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정립하여 줄것을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개발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科學技術處를 副總理급으로 격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지난 1966년 본연합회가 전국 과학기술인의 總意를 모아 科學技術處의 설립을 건의할때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大統領과학기술諮問會議 설치, 大統領과학기술特別補佐官직제 신설, 憲法의 과학기술관련조항 보강등을 건의하고 주창하여 온 것도 과학기술이 우리의 장래를 좌우할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第6共和國의 출범과 더불어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국가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체제로 행정조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行政改革위원회의 조정작업이 이와같은 우리의 축적된 여망을 반영하여 줄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行政

조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조정안에 의하면 우리의 기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조정안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룩해온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는 國家發展 基調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優位主義가 확립되고 이의 실현을 위한 政策開發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行政體制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실제 조정안에서는 현실의 科學技術處 기구를 축소하고 기능의 일부를 타부처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전후가 맞지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과학기술 促進策이 순전히 政府나 企業의 투자확대 수준에만 머물것

이 아니라 全國民의 가치의식, 직업선호, 생활양식같은 文化的 측면에서의 과감한 變質을 추구하는대로 까지 미쳐야 할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科學技術處의 조직과 기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行改委의 조정안은 이와 정면 배치되고, 기존의 연구분위기마저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百萬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축으로 삼는 未來指向的 발전을 위한 國民的 發想의 대전환과 이를 뒷받침하고 이끌어갈 發展戰略 및 政策基調의 근본적인 變化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1. 行政改革위원회의 科學技術處 축소 조정안은 과학기술의 혁신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데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국내정세나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하여 가고 있는 국제여건상 시의에 맞지 않는다.

2. 차제에 科學技術處는 科學技術政策을 종합조정하고 연구개발 投資費를 배분할 수 있는 位相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科學技術處는 범부처적으로 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部」 또는 부총리級的의 「院」으로 격상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비의 집행을 위하여 시·도 및 관계부처에 「科學技術振興擔當官」제의 신설이 요망된다.

3. 産業技術관련 政府出捐연구소의 관장부처 이관은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의 출연연구소의 기능을 基礎연구와 尖端기술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고, 一般産業기술의 개발은 각부처 소관의 기존 연구소와 民間연구소의 기능활성화를 통하여 이룩하여야 한다.

이는 모처럼 이룩된 연구분위기의 안정은 물론 學際間 연구협력의 지속과 고급인력의 수용 및 양성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구의욕을 고취하게 될 것이다.

1989년 8월 1일

科總 회원단체일동

# 「韓·日기초과학공동위원회」설치키로

## 양국 科學技術장관 회담서 합의

### 「新素材특성평가센터」설립 지원도

李祥羲과학기술처장관은 8월4일 나카무라 기시로 日本과학기술청장관과 회담을 갖고 「韓·日기초과학공동위원회」설치 및 「新素材특성평가센터」설립지원등에 합의했다.

새로 설치될 韓·日기초과학공동위원회는 양국과학자 20명 내외로 구성돼 기초과학분야의 韓·日공동연구추진지원, 기초과학정보 및 과학자교류,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세미나등을 포함한 학술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구체적인 설립 운영방안은 오는 10월 개최될 韓·日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현재 과기처가 91년 설립 예정으로 추진중인 「신소재특성평가센터」설립에 日本측이 전문가 및 기자재지원등을 통해 국제공동연구형태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李장관은 또한 朴容大중앙기상대장과 함께 가쿠지 유키오 日本기상청장을 방문, 양국간 기상기술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태풍과 집중호우등 나쁜 기상예보모형개발에 대한 협력증진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레이다/영상처리

기술향상을 위해 현장연수 및 공동연구 추진 ▲기상업무와 관련, 개발된 소프트웨어등 정보의 교환촉진등에 합의했다.

韓國, 28위 차지

국제數學올림피아드에서

7월13일부터 23일까지 西獨의 브라운슈바이크에서 열린

제30회 國際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은 참가국 50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大韓數學會에 따르면 전세계 고등학생들이 국가별로 참가, 수학실력을 겨루는 이 대회에서 6명이 참가한 한국팀에서는 유일하게 경기과학고 2년 黃규완군이 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중국이 차지했으며 2위 루마니아, 3위 소련, 4위 동독, 5위는 미국에게 돌아갔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2천년의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개최국으로 확정됐다.

### 基礎科學연구진흥法(案) 마련

#### 문교부·科技處 공동으로

#### 政府주도 「연구정책추진심의회」도 설치

대학의 基礎科學연구를 제도로 뒷받침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이 최근 과학기술처와 문교부 공동으로 마련됐다.

기초과학연구의 관계부처인 두 부처가 입법 추진키로 합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기초과학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장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초과학연구정책 추진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학의 연구여건조성을 위해 ▲교수의 연구

비지원 ▲연구교수 및 연구원가제 ▲객원교수 연구원제 ▲석·박사과정 학생의 연구비 장학금 지원과 병역특례제 ▲박사후 연수 ▲연구기자재 지원 ▲대학부설 연구소 및 우수 집단 형성 지원 ▲출연연구소·기업연구소의 기초과학연구 활성화 ▲學·研·産 교류촉진 ▲기업의 대학기초과학 연구활동 지원 촉진등의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구기기 공동활용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토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科學技術界 懸案 건의

## 科總, 청와대 · 경제기획원에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朴泰源회장을 비롯한 權彝赫차기회장, 韓鏞徹부회장, 鄭助英상임부회장등 회장단은 7월19일 경제기획원으로 趙淳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예방하고 획기적인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이미 지난 4월 전국 1백만 과학기술인의 건의를 통해 밝힌바 있는 기초과학활성화자금 3천억원의 확보·배정과 학회학술활동등 육성지원 강화 및 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지원 그리고 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의 개선등 과학기술계 당면문제를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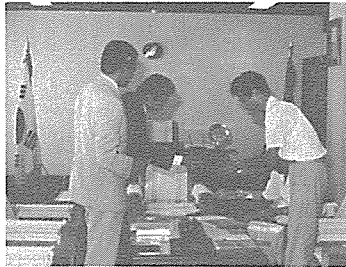
科總은 또한 동 건의서를 8월1일 청와대의 관련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편 행정개혁위원회의 「과학기술행정체제조정안」에 대한 범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집약한 성명서를 발표한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다시 8월11일 鄭助英상임부회장이 청와대의 관련 비서관을 방문하고 行改委의 조정안이 현재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축소내지 분산하는 내용임을 밝히고 『이는 오늘날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생존과 번영을 전적으로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발

전기조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 우위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명제와 배치되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요지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 韓 · 中 협력방안 모색

#### 中國과학자 科總예방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鄭助英상임부회장은 8월17일 학술회의 참석차 來韓한 中國科學技術協會(회장 錢學森) 韋田光 副部長과 程寧寧 국제회의처 處長助理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증진 방안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선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中國과학기술협회가 중심이 되어 民間차원에서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키로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관련자료 및 정보 교환, 국제회의 참가등으로 과학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8월13일부터 힐튼호

텔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아·오세아니아 生化學국제학술회의 참가차 來韓, 회의참석후 科總 등 관련기관을 방문한뒤 22일 出國했다.

### 姜慶植박사 科總방문

在美科技協 姜慶植前 회장(美 브라운大교수)이 8월17일 科總을 예방하고 鄭助英상임부회장과 과학기술인력유치 및 상호협조방안등을 협의한 후 귀임했다.

### 과학기술 交流 희망

#### 헝가리 産業시찰단 來韓

헝가리 科學技術者協會 총연합회 회원으로 구성된 헝가리 산업시찰단(단장 Dr. Zupko Gabor) 일행 30명이 8월16일 科總과 韓國기술사회를 방문, 양국간의 과학기술교류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또 한국기술사회 회원들과 건축, 토목, 정보처리등 분야별로 협의회를 갖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학기술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헝가리 측 희망에 따라 韓國貿易振興公社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航空宇宙 연구소 設立

### 5년간 3천억원 投入, 科學衛星개발 목표

#### 機械研부설로 發足 - 92년 獨立

政府는 향후 5년간 3천억원을 투입, 忠南 大德연구단지에서 과학위성 및 운반체와 中型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航空宇宙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

항공산업육성위원회(위원장 趙淳부총리)는 7월25일 李祥義과기처장관이 제안한 항공우주연구소 설립계획을 의결하고 8월에 한국기계연구소 부설로 설립, 우선 45명의 연구인력으로 출범하여 오는 91년 2백50명의 연구인력을 갖춘 독립연구기관으로 발족시킬 계획이다.



새로 설립되는 항공우주연구소는 중형항공기, 위성체, 운반체 및 관련시스템에 대한 기초,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항공우주분야의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 산업체지원, 주요국가사업의 기술지원 및 항공우주 정책개발등을 맡게 된다.

특히 이 연구소는 8월중에 대덕연구단지내 天文宇宙科學 연구소 인근에 1만6천평규모

로 건설되며 대형아음속풍동 등 주요장비를 갖추고 대한항공, 삼성, 대우, 민간기술연구

소와 협력하여 항공우주분야 기본연구와 인력양성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관련기술수준은 항공기의 창전비를 비롯하여 헬기, F-5E전투기의 공동생산경험을 갖고 있으며 기체조립, 일부부품가공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수준이다.

## 工業基盤기술 148개과제 확정

### 商工部, 自動化기술 등에 247억원 支援

商工部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工業基盤기술개발사업의 89년도 신규지원대상과제로 1백46건의 기술개발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1백46개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백47억원 규모로 이중 46.6%인 1백15억원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업체가 자체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 소요개발비의 40%부터 최고 80%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들 신규기술개발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재료 및 화학분야 36건 ▲자동화관련기술 40건 ▲전기전자분야 40건 ▲기계분야 24건 ▲섬유 및 생활용품분야 6건등이다.

상공부는 또한 반도체산업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9년도 신규과제로 전자통신연구소와 반도체연구소합이 공동참여하는 차세대기억소자 개발과제에 20억원을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1백46개 과제는 지난해 상공부가 학계·산업계와 공동으로 실시한 공업기술수요조사결과 발표한 1백73개 핵심기술과제를 대상으로 국립공업시험원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이들 기술의 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연간 수입대체 9억5천만달러, 수출증대 8억4천만달러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91년 賢博 「과학기술관」 전시계획 확정

### 主題는 어머니의 손 전시물 29種 선정

政府는 오는 91년 忠南 大德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산업 박람회 과학기술관의 주제를 「어머니의 손」으로 정하고 「우주/해양」「정보/컴퓨터」「에너지/교통」등 6개분야에서 29개 주제의 전시물을 전시키로 했다.

科技處는 7월26일 李祥義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관 추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요원으로 편성된 전시기획단에서 작업한 기본계획(안)을 심의, 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연구시설로 세워질 과학기술관은 3천평규모로 박람회장 중심부에 위치하며 21세기의 첨단과학기술을 보여주게되며 주위에 4천평규모의 야외과학공원도 함께 갖출 계획이다.

이 과학기술관의 주제 「어머니의 손」에서 어머니는 創造를, 손은 솜씨와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인이 이뤄낸 창조적 과학기술을 한 곳에 집약, 소개한다는 것이다.

과기처는 과학기술관에 전시될 전시품제작을 위해 2백57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고 내년 3월까지 전시전문용역회사를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고 오는 91년 2월까지 전시품제작 및 건축시공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29개 전시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글문자의 발전과정 ▲한국의 로켓의 우주개발(神機箭)
- ▲거북선 ▲한국의 시각과 시계 ▲로봇(차세대 지능등 3항목)
- ▲태양열자동차 ▲미래의 생명과학 ▲선박모형수조 ▲컴퓨터피아 ▲자기부상열차 ▲고분자신소재 ▲뉴미디어가 창출하는 미래의 정보화사회 ▲비정질소재개발 및 응용 ▲고분자복합재료 ▲기적의 뿌리 고려인삼 ▲핵융합에너지 ▲초전도응용기술 ▲미래의 공장 ▲해양개발 ▲세라믹과 생활 ▲고분자신소재(인공장기등) ▲대체에너지이용 모범단지 ▲3차원 형상가공시스템 ▲플라스틱배터리 ▲핵연료무기 ▲고성능 접착제 ▲케미컬디자인 ▲고속증식로 ▲석유의 이용과 석유화학제품의 흐름

#### 研究團地 추가조성

科技處, 全州 등 4개 도시에

科學技術處는 내년에 착공될 光州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에 이어 全州 大邱 釜山 江陵등 4개 도시에 연구단지를 조성키로하고 내년중에 신설계획연구단지들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연구단지건

설 및 전국의 기술지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대망조성촉진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이를 위한 사업비로 각 10억원씩 4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다.

이들 4개도시에 연구단지 추가 조성되면 전국의 연구단지는 서울의 洪陵, 大德, 光州 등과 더불어 7개로 늘어나는데 과기처는 이밖에 자생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水原 安城지역, 浦項 蔚山지역 연구단지들과 함께 전국기술지대망의 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주는 생명공학에너지 정밀기계 자동차등 서해안 기술벨트의 중심연구단지로 육성하며 포항 울산은 정밀화학 중공업 신소재등 동해안 기술벨트, 서울 수원 대구 부산은 전자 반도체 생명공학등 남북간 기술벨트, 대덕 강릉은 정보산업 의료복지등 동서간 기술벨트의 중심연구단지로 각각 육성할 계획이다.

#### 科技處人事

- ▲공업부기감 許楠(3급승진)
- ▲기획총괄담당관 朴永逸 ▲기획진흥담당관 金相善 ▲기술제도담당관 郭鍾喆 ▲인력계획담당관 尹聖熙 ▲연구협력담당관 薛東大 ▲포항축후수장 申鉉甲 (이상 4급승진) 7월 25일자.

# “生命科學연구지원 확대절실”

## 2천년까지 3조9천억원 확보해야

### 관련위원회, 「생명과학推進委」설립 건의도

생물학, 화학등 기초과학에서부터 보건, 의료, 환경, 식량, 자원등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관련되는 生命科學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만8천5백명(이중 박사급 2천3백명)의 전문연구인력과 3조9천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生命科學추진계획수립위원회(위원장 趙完圭서울대총장)가 국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작성한 「국민복지를 위한 생명과학 추진 및 정책총괄계획」에 따르면 생명과학을 단순한 연구개발차원에서 벗어나 국민복지와 21세기 세계 10대 생물공업국가 실현을 위해 긴급한 전략적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전문인력양성 및 투자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2천년까지 3단계에 걸쳐 박사급 전문인력을 2천3백명선까지 확충하고 연구개발비도 90년 5백억원, 2천년 9천억원등 총 3조9천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계획은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생명과학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 연

구인력 및 재원조달을 통합 조정토록 하고 소요연구자금확보를 위해 유전공학 연구기금 조성의 활성화, 산림개발비부과나 석유비축기금 및 의료보험수입의 일부를 에너지 보건 의료연구비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생명과학의 연구개발에서 국가적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생명과학연구원(가칭)」과 기술지대방법로 단백질, 미생물, 해양생물, 농업등 전문기술연구소등을 설립하고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센터 및 기초공학연구센터의 생명과학분야의 연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회는 보건 의료 등 5개분야에 관한 목표 및 중점연구과제를 선정했는데 ▲보건의료분야에선 평균수명의 증가와 영아사망률저하, 암과 순환기계질환의 퇴치, 간염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고 ▲환경분야에선 수질, 대기오염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낮추고 환경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오염실태조사와 영향평가등 기초작업을 벌이며 환경오염에 의한 돌연변이, 직업병등을 연구한다. ▲자원분야에서는 미생물에너지인 바이오매스를 액체연료화하여 2010년까지

수송용에너지의 18.8%를 대체할 계획이며 ▲공업분야에선 2천년까지 생물공학적 신물질과 신공정을 각각 2~3개씩 개발해 생물공업시장을 전체제조업의 5~10%선까지 높이고 세계시장의 5% 점유(연간 30억달러)토록 한다는 것이다.

### 109과제에 7억3천만원 지원 産學協同財團, 올 연구비로

재단법인 産學協同財團(이사장 南惠祐)은 금년도 동재단 지원대상연구과제 109건에 7억3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확정했다.

지원대상과제는 자연과학계가 68건(5억4천6백만원), 인문사회계가 41건(1억8천4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사전에 산업계에서 제시된 「指定연구과제」 7건 및 기업체의 연구자금 공동분담(Matching Fund) 연구과제 25건(지정연구과제 중 2건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구비는 재단지원금 5억7천만원과 大圓鋼業<주> 등 24개 업체로부터 분담자금 1억6천만원등 모두 7억3천만원이 지급된다.

전국 4년제 대학(교)중 49개 대학에서 2백7명의 교수가 참여하게 될 동재단의 연구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대학교수들의 1년단위 연구계획을 지원하는 것으로 1974년 재단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2천5백85건의 연구과제에 68여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바 있다.

# 「말하는 컴퓨터」 등장

## 科技院 殷鍾官박사팀, 韓國語 音聲합성시스템 開發

사람처럼 말을 하는 컴퓨터가 등장한다.

韓國과학기술연구원 殷鍾官 교수(전자공학과)팀은 최근 과기처 특정연구과제로 2년간의 연구끝에 한글정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무제한 한국어 음성합성시스템의 기초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문자의 화면표시나 인쇄로 정보처리 결과를 출력하는데 반해 음성합성시스템은 가장 자연스러운 통신수단인 음성으로 출력을 내도록 한 것.

殷박사팀은 우리말 음성의 기본단위를 각각 한개의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2중音素인 다이폰을 선택, 이를 조합해서 원하는 문장을 음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殷박사팀은 현재 2중音素2백자의 특징을 잡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2년내에 모두 1천2백개의 2중음소 데이터베이스를 완성시킬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기상현황, 증권동향등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다양한 정보를 현장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며 컴퓨터과의 경우도 미리 마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입력하면

화면은 물론 음성으로도 출력되어 컴퓨터화면을 장시간 들여다 보는데서오는 시력저하도 막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시각 및 청각장애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음성으로 전달함으로써 정상인과의 대화를 쉽게해 줄 수 있다.

殷박사는 무제한 한국어 합성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하드웨어 디자인도 끝났기 때문에 3년이내에 말하는 컴퓨터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尿素함량 측정 半導體센서 開發

### 경북대 孫炳基교수팀, 신장병치료에 큰 도움

주사기바늘을 통해 신장병 환자의 尿素함량을 손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반도체 바이오센서가 개발됐다.

경북대 전자공학과 孫炳基교수팀은 과기처 특정연구과제로 경북대 고분자공학과, 제주대 전자공학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혈액이나 소변중에 섞여 있는 요소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반도체를 이용한 의료용 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센서는 요소를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유레이저」라는 효소를 입힌 일종의 실리콘 반도체로 요소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수소이온을 전기적으로 감지해 측정하는 의료용기기이다.

기존요소측정기는 일차적으로 혈액이나 소변을 일정량 뽑아 지름 1cm, 길이 10~15cm가량 되는 원통형전극을 이용해

요소함량을 감지한 다음 이를 측정회로로 다시 측정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에비해 요소측정 반도체센서는 반도체 생산공정을 이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 측정기기의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센서의 감도가 우수하고 빠르기 때문에 1~2분정도면 미세량까지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사기바늘을 통해 인체에 직접 집어넣기 때문에 요소량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감지, 수술중 환자의 상태를 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孫교수팀은 요소측정센서를 개발한데 이어 당뇨병의 포도당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반도체 바이오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大賞에 「불꽃반응 실험장치」

全國 학생과학發明品 경진대회

入賞作 3백점 과학관 전시실에 전시

제11회 全國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과학기술처·동아일보·소년동아일보 주최, 한국야쿠르트유업 협찬)에서 영예의 과학발명대상(상금 2백만원)에는 「불꽃반응 실험장치」를 출품한 大邱 慶雲中 3년 金仁哲군(15), 과학발명상은 「즐거운 우리집」을 출품한 全北 裡里工高 2년 金東基군(17)에게 돌아갔다.

또한 금상은 「독극물 안전병마개따개」를 고안한 金輝珉군(11·전남도초서곡교 5년), 「컴퓨터를 이용한 공명현상 탐구장치」를 출품한 李明式군(17·강원 고란중합교 2년), 「미로를 통한 주사위놀이」를 출품한 廉榮雨군(15·부산 해운대중 3년)등이 차지했으며 이밖에도 은상 24점, 동상 60점, 장려상 2백11점 등 총3백점이 뽑혔다.

대상 수상작품인 「불꽃반응 실험장치」는 원소의 불꽃반응 실험에서 시료용액을 기체상태로 만들어 뿜어줌으로써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선명한 불꽃색을 낼 수 있는 실험장치이다.

또 과학발명상 수상작 「즐거운 우리집」은 자석의 인력과 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 각종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완구로 하나의 회전판위에 물레방아,

시소, 로켓등을 바꾸어 가며 다양한 동작을 연출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대회의 입상자중 과학발명대상 및 과학발명상 수상자와 지도교사, 금상 수상자 3명등 7명의 상위권 입상자에게는 영국, 프랑스등 유럽지역의 과학관련시설을 견학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한편 전국 초·중·고교생의 작품 7천1백85점 가운데 뽑힌 이 대회의 입상작품들은 8월24일까지 16일 동안 국립과학관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特定 연구개발과제

研究結果발표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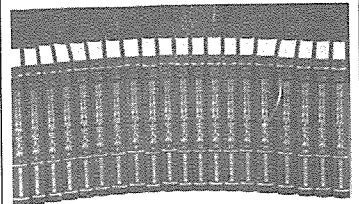
科學技術處는 88년도 특정 연구개발 사업중 금년도 상반기에 연구수행이 완료되는 國家主導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회를 대한전자공학회등 4개 학회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7월20~21일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는 소프트웨어분야 등 5개분야에서 「과학연구용 로켓트 개발을 위한 필수기술 연구」 등 55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 논문 84편이 발표됐다.

세계科學史 집대성

「자연과학사大系」 出刊

과학의 빛이 처음으로 열린 저 오랜 이집트의 여명기에서부터 20세기 초엽의 양자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세계과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世界自然科學史大系」가 韓國 과학기술진흥재단(이사장 金基衡)에 의해 간행됐다.



이 「세계자연과학사대계」는 과학의 여명, 고대과학, 20세기 과학등 각 분야에 걸쳐 通時的으로 엮은 것이 15권이며 과학기술의 역사를 각종 삽화와 도판 및 컷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한 것을 한권으로 묶었다. 또 과학사상 길이 古典으로 남아있는 161권의 저서를-예컨대 「아메스 파피루스」에서 「중성자발견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해설한 고전名著해제를 2권으로 엮었으며 과학관계의 문헌, 사항, 인명등 자료를 정리한 별책 1권등 19권의외에 韓民族의 기원에서부터 20세기 근대과학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모은 「韓國科學史」 한권을 덧붙여 총 20권으로 이루어졌다.

〈신국판·총7천여쪽·전20권·각권 10,000원〉

과학기술계뉴스

科總회원단체 水災義捐金 모금 현황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7월 하순에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주디로 인해 災亂을 당한 水災民을 위한

水災義捐金을 모금, 科總임직원과 산하 회원단체의 이름으로 7월 31일 1차로 한국일보사에 3백 21만 5천원을 전달한데

이어 8월 19일 매일경제신문사에 1백 54만 4천 8백 80원을 기탁했다. 수재의연금 모금현황은 다음과 같다.

(89. 8. 18 현재, 단위 : 원)

회원단체명	금액	회원단체명	금액	회원단체명	금액
대한지리학회	50,000	한국항공우주학회	50,000	한국음향학회	40,000
대한화학회	50,000	한국가금학회	30,000	한국인구학회	50,000
한국균학회	50,000	한국가축번식학회	50,000	한국전자현미경학회	30,000
한국동물학회	50,000	한국식물병리학회	50,000	한국조경학회	30,000
한국물리학회	50,000	한국식품과학회	30,000	한국창조공학회	20,000
한국미생물학회	100,000	한국연초학회	50,000	한국태양에너지학회	30,000
한국식물학회	100,000	한국영양식량학회	50,000	대한수의사회	50,000
한국유전학회	50,000	한국육종학회	50,000	한국농업과학협회	100,000
한국조리과학회	100,000	한국임상수의학회	30,000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30,000
한국통계학회	50,000	한국축산학회	50,000	한국섬유기술사회	30,000
한국해양학회	50,000	대한간호학회	50,000	한국작물학회	100,000
공기화학냉동공학회	50,000	대한나학회	20,000	한국심리학회	50,000
대한건축학회	50,000	대한미생물학회	50,000	대한순환기학회	100,000
대한전기학회	50,000	대한바이러스학회	30,000	한국육수학회	30,000
대한전자공학회	50,000	대한알레르기학회	50,000	한국자동차공학회	50,000
대한조선학회	50,000	대한약리학회	50,000	대한금속학회	50,000
대한토목학회	50,000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학회	100,000	한국주조공학회	50,000
대한토질공학회	30,000	대한정형외과학회	100,000	대한지질학회	50,000
대한환경공학회	50,000	대한초음파의학회	100,000	대한위생학회	100,000
한국고무학회	30,000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	50,000	소계 (75개 단체)	4,134,570
한국고분자학회	50,000	대한해부학회	30,000	과총임원 및 사무처	625,310
한국공업경영학회	30,000	대한혈액학회	100,000	부회장 : 한용철, 신무성	
한국부식학회	30,000	대한화학요법학회	50,000	김영권	
한국비파괴검사학회	50,000	대한수의공중보건학회	50,000	이 사 : 정중현, 최지훈	
한국섬유공학회	50,000	한국환경위생학회	50,000	박희선, 선우양국	
한국요업학회	50,000	대한방사선방어학회	50,000	성우경, 문희성	
한국유휴학회	50,000	한국식문화학회	100,000	김경식	
한국펄프종이공학회	50,000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4,570	감 사 : 신응균	
				합 계	4,759,880



### 대한의용생체공학회

大韓醫用生體工學會(회장 金殷泳)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9월21~22 양일간 KIST 존슨강당에서 창립 10주년기념강연회 및 韓·日합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첫날인 21일에는 「첨단기술과 의용생체공학」이란 주제로 기념강연회를 갖고, 첨단기술과 의료, 첨단기술과 복지사회, 첨단기술과 의료기기에 관한 관계전문가들의 강연이 있게 되며 22일까지 실시되는 韓·日합동학술회의에선 「Medical Imaging and Imaging System」 「Bioinstrumentation」 「Artificial Organs and Biomaterials」 등을 주제로 韓·日 양국관계자들의 최신연구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련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기기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79년 7월 의학, 생물학에 관한 공학적인 방법과 공학에 대한 의학, 생물학적 지식의 응용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지식교류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학회는 6월 현재 77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

大韓電氣學會(회장 朴永文)는 7월21~22 양일간 창원에 소재한 한국전기연구소에서 금년도 夏季종합학술대회를 열고 특강 2편을 비롯 강연 3편, 논문 163편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특히 韓電 安秉華사장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전력사업의 견인적역할」 日本電氣學會 三井恒夫부회장의 「21세기를 지향하는 전력기술의 전망」등 두편의 특강과 「전력사업의 경쟁력(徐錫天 / 한전전무)」 「Gas 절연 변전기기의 신뢰성향상기술(鬼頭幸生 / 名古屋大교수)」 「일본의 전력케이블의 기술동향에 대해서(藤木茂 / 古下전기전력사업부장)」등 세편의 강연이 있었으며 「전기기기」 「제어계측」 「전력계통」 「전기재료 및 반도체」 「방전 및 고전압」 「전자계산기」 「전력전자」 「파동 및 양자전자」 「로보틱스 및 자동화」 「회로 및 시스템」 등 10개 분야에서 「초전도교류발전기의 설계」등 16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 대한국토계획학회

大韓國土計劃學會(회장 朱鍾元)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국제세미나를 7월25일 세라톤 워커히호텔에서 개최했다.

沿革보고로 시작된 기념식에선 朱鍾元회장의 기념사와 高建서울특별시시장의 축사에 이어 학회의 업무협조와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한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9개 기관에 감사장과 함께 시가 10만원 상당의 시계를 전달하고 吳石煥교문등 19명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遺産과 개발」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선 韓·中·日 3개국의 관계전문가 6명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대한기계학회

大韓機械學會(회장 孫明煥)는 7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파괴원인 및 방지를 위한 기술강습회」를 개최했다.

피로 및 파괴학의 기초에서부터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다룬 이번 강습회에서는 「파괴학의 기본(김영식 / 해양대)」 「파괴학의 설계응용(이억섭 / 인하대)」 「음향방출법의 파괴와 비파괴응용(이강용 / 연세대)」 「용접부의 균열발생과 방지대책(황선효 / KIMM)」 「부식환경에서의 파괴 및 피로(권영각 /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비파괴균열검출법 및 실험(박은수 / 서울산업대)」 「변동하중하에서 피로파괴(송지호 / KAIST)」 등 10개 강좌가 강의됐다.

## 과학기술계뉴스

### 대한지리학회

大韓地理學會(회장 張保雄) 춘계학술논문 발표대회가 6월 24일 성신여대에서 열려 동국대 형기주교수의 「동서교섭의 잔영 - 천산남로를 중심으로」에 관한 특강과 16편의 일반논문발표가 있었다.

「인문지리학(도시, 사회, 문화, 경제)」과 「자연지리학」으로 나뉘어 발표된 이번 논문발표대회에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도시간 인구이동」 「도시 성장에 따른 직업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에 있어 자동차의 지역적 유통체계」 「한국의 강수량분포에 대한 지형의 연못」 등 1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 한국목재공학회

韓國木材工學會(회장 李元用) 89년도 夏季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가 7월21일 울산시 다이아몬드호텔 회의실에서 열려 특강 2편, 학술연구발표 3편이 있었다.

특히 학술발표회에선 현대 종합목재산업<주> 윤여경공장장이 「가구공업의 현황과 미래」 경도화학 도정민상무가 「한국의 목재도장기술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강원대 배영수씨의 「美松내피 탄닌의 설폰화, 분리 및 구조 규명」 임업연구원 조태수씨의

「열기계펌프의 개질이 종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 화학연구소 엄태진씨의 「리그닌화학구조의 불균질성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 한국요업학회

韓國窯業學會(회장 安永弼)는 7월6~7일 양일간 단양파크관광호텔에서 제17회 시멘트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특강 3편, 일반연구논문 11편을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선 美 GAMA-METRICS社 Vijay Ragavan씨의 「On-line Analysis of Bulk Material」 獨逸 O & K社 Karpinski씨의 「The Development of Mobile Crusher Plants to Large Scale」 인하대 韓基成교수의 「인도에서의 Cement Concrete 연구동향」 등 세편의 특별강연과 「EVAC emulsion의 첨가에 따른 시멘트의 미세구조 변화(金昌殷/연세대교수)」 등 11편의 연구논문발표가 있었다.

### 대한광산학회

大韓鑛山學會가 韓國資源工學會로 학회명칭을 변경했다.

동학회가 최근 文敎部의 승인을 얻어 학회명칭을 개칭하게 된 것은 설립당시인 63년에는 경제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원이 광산개발로부

터 얻어졌으나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다양화로 새로운 분야로의 학술활동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

따라서 동학회는 앞으로 ▲유류 또는 핵폐기물의 지하저장장과 도시기능의 지하로의 일부부산등을 위한 지하공간의 개발활용(암석역학분야) ▲석재 및 골재자원(석재가공기술 및 분체공학) ▲해양자원 및 대륙붕개발(탐사공학 및 유전개발공학) ▲자원처리기술(분체공학 및 선광공학) ▲자원활용기술 폐기물처리 기술 ▲자원탐사를 위한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분야 등의 학술분야의 발달과 자원경제개발 촉진에 주력하게 된다.

### 한국주조공학회

韓國鑄造工學會(회장 安斗植)는 7월21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금년도 하계 주물기술강연 및 공장견학회를 가졌다.

주조산업의 기술정보교환을 위해 마련된 이 강연회에서는 KIMM 주물연구부 김동욱부장의 「국내주물공업의 현주소」에 관한 특별강연에 이어 「피이더 캘크롤를 이용한 주철의 압탕방안」 「컴퓨터에 의한 응고시뮬레이션에서의 잠열 및 경계면의 열전달처리」 「ADI의 제조법과 그 특성」 「새로운 조형기술」 등 4편의 강연이 있었다.

科總 회원단체 8月 학술행사 계획 일정

단 체 명	대 표 자	행 사 명	일 자	장 소
한국섬유공학회	송 석 규	하계세미나	8. 3 ~ 5	경주코오롱호텔
한국조경학회	손 창 구	하계임시총회 및 학술발표회	8. 4 ~ 5	강원대학교
한국향해학회	윤 여 정	총회 및 학술발표회	8. 4	한국해양대학
한국과학교육학회	김 창 식	초등과학교육심포지움	8. 5	원촌국민학교
대한전기학회	박 영 문	한·미공동세미나	8. 17~18	라마다르네상스호텔
한국화학공학회	박 원 희	제3회 한·일본제공학세미나	8. 9 ~ 11	금오관광호텔
한국물리학회	안 세 희	플라즈마 워크숍	8. 11	경북대학교
한국통신학회	강 창 언	하계종합학술대회	8. 11~12	부산동아대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최 상 홍	하계특별강연회	8. 12	울산대학교
한국생화학회	한 문 희	제5회 FAOB 서울학술대회	8. 13~18	힐튼호텔
한국물리학회	안 세 희	응용물리학심포지움	8. 16~17	연세대학교
한국고분자학회	안 태 완	제11회 고분자하계대학	8. 16~19	백암관광호텔
대한기계학회	손 명 환	정밀계측기술강습회	8. 16~18	서울대학교
한국부식학회	남 중 우	부식 및 방습강습회	8. 17~19	과학기술회관
한국물리학회	안 세 희	물리교육학술논문발표회	8. 17	제주대학교
대한용접학회	엄 동 석	용접기술강습회	8. 17~19	울산대학교
한국과학교육학회	김 창 식	하계학술연구발표회	8. 17	제주대학교
한국통신학회	강 창 언	광통신, 통신시스템교환망에 관한 기술세미나	8. 18~19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물리학회	안 세 희	캐도방사광사용자학술회의	8. 18 - 19	포항공과대학
한국물리학회	안 세 희	광학 및 양자전자 워크숍	8. 18~19	한국해양대학
한국식물학회	이 인 규	식물과 토양심포지움 및 워크숍	8. 18~19	서울대
한국생태학회	김 준 호	공동개최		
한국정보과학회	이 철 희	광학 및 양자전자 워크숍	8. 18~19	한국해양대학
대한기계학회	손 명 환	재료의 피로거동과 내부조직에	8. 19	유성관광호텔
대한금속학회	김 학 기	관한 공동 학술강연회		
한국축산학회	박 영 일	세계축산학회장초청 국제세미나	8. 19	축산회관대회의실
한국영양학회	김 숙 희	제14차 국제영양학술회의	8. 20~25	인터콘티넨탈호텔
대한전기학회	박 영 문	IFAC 심포지움	8. 22~25	라마다르네상스호텔
한국정보과학회	이 철 희	P. L 하계학술강좌	8. 22~2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약제학회	지 용 길	하계국제심포지움	8. 24~25	제약회관
대한교통학회	임 강 원	'89 제2차 토론회	8. 26	교통개발연구원
대한전자공학회	이 충 응	화상 및 텔레비전연구회학술발 표회	8. 2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음향학회	은 중 관	음성통신 및 신호처리 워크숍	8. 28~2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과학기술계뉴스

### 한국농업기계학회

韓國農業機械學會(회장 崔圭洪)는 韓國農業科學協會(회장 吳鳳國)와 공동으로 농업기계사고와 안전대책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7월20~21 양일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선 金聲來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일본의 농업기계사고와 안전교육 및 제도(米村純一/日 東京農工大교수)」 「일본의 농업기계 안전설계와 검사(森芳明/日 농업기계화연구소부장)」 「미국의 농업기계사고와 안전대책(W.E. Field/美 Purdue 대교수)」 「한국의 농업기계사고 실태(朴南鍾/농업기계화연구소 연구관)」등 8편의 연제가 발표됐다.

### 한국고분자학회

韓國高分子學會(회장 安泰完)는 産學協同事業의 일환으로 제11회 고분자 夏季大學을 8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백암동해관광호텔에서 개최한다.

최신 선진외국의 고분자산업 분야의 동향을 조망하고 재료 및 기술개발방향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하계대학에서는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인 姜博光박사의 「2천년대의 과학기술정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개발실

최준철박사의 「고분자공업과 특허」등 특강에 이어 「고분자의 새로운 합성반응(안광덕/KIST)」 「축중합계 고분자의 합성 및 고성능고분자의 연구 개발동향(최길영/화학연구소)」 「에멀전중합 및 응용(박이순/경북대)」 「고분자 가공기술(김봉식/영남대)」 「열가소성 복합재료의 현황과 전망(최철림/KIST)」 「전기전자용 고분자재료(전영관/SKC)」 「분리막기술의 최신동향(김재진/SKC)」 「에폭시수지의 개질(노광현/숙대)」등 8개 강좌에 대한 강의가 있게 된다.

### 용접학회 · 조선학회

大韓熔接學會(회장 嚴東錫)와 大韓造船學會(회장 金辰安)가 공동주최하는 夏季 용접기술강습회가 8월17~19일까지 3일간 울산대 공과대학 문수관 M201호에서 열린다.

이번 강습회에선 한국기계연구소 박영조실장과 日本 규슈대 M. TOYOSADA교수등 5명의 연사가 「변형과 잔류응력」 「용접부시험, 검사」 「용접시공관리」 「TMCP 강재의 특성」 「용접부의 파괴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다.

### 한국음향학회

韓國音響學會(회장 殷鍾官)는 오는 8월28~29일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원 동부지역 강당에서 89년도 음성통신 및 신호처리워크숍을 개최한다.

「Man - Machine Interface 기술」이란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워크숍에서는 음성통신 및 음성신호처리에 관련된 최신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한국자동차공학회

韓國自動車工學會(회장 趙慶國)는 7월19일 자동차공업회관 강당에서 日本 와세다대학의 사이토 다게시교수를 초청,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이번에 사이토교수는 「일본의 자동차 배출물규제에 관한 경과」에 대해서 강연했다.

### 이탈 안내

#### 한국과학사학회

韓國科學史學會(회장 李燦)는 최근 학회사무실을 서초구 서초동 1473-10 KID빌딩으로 옮겼다.

전화 : 585-5856

#### 한국전자현미경학회

韓國電子顯微鏡學會(회장 白承福)는 학회 사무실을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341 목암생명공학연구소로 이전했다.

전화 : 741-0611~2